

맞벌이 가게

저축·생활비 등 큰 도움돼

국민가계경제연구소 〈맞벌이 가게...〉 조사서 밝혀져 가구·가사용품, 가사서비스부문 지출 도시근로자 가계의 4배

우리나라 맞벌이가계의 소비 지출 규모는 비맞벌이가계나 일반도시근로자가계보다 절대 규모에서 크지만 소득에 대한 지출비중인 소비성향은 다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. 또 맞벌이 부부들은 맞벌이로 저축, 생활비, 자녀양육비, 주택마련 순으로 큰 도움을 받는다고 응답, 맞벌이가 가게경제에 일단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됐다.

이같은 사실은 최근 국민가계경제연구소가 서울과 수도권 6백명과 비취업주부 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〈맞벌이가계의 소비지출행태 및 주부취업에 대한 인식〉 조사결과로 밝혀진 것이다.

이 조사에 따르면 맞벌이가계의 월평균소득액은 2백13만원(주부의 월평균수입액 87만원, 남편 1백26만원)으로 도시근로자가계의 1백29만원보다 월등히 높은 반면 월소비지출은 도시근로자가계의 약 1.4배 수준인 1백17만원으로 나타났다. 이는 맞벌이가계의 소비지출이 타가계보다 많지만 소득에 대한 지출비중은 낮은 편이다. 또 맞벌이가계 월평균



저축액은 65만원으로 타가계보다 2배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.

맞벌이주부의 월수입은 보너스를 포함해 70만원 이상 1백만원 미만인 33.9%로 가장 많았고 50만원 이상 70만원 미만인 22.5%로 두번째 높은 비중을 보여줬다.

한편 맞벌이가계의 소비지출 행태는 기호식품·월세·주택수리비 등 주거비, 가사서비스, 교육·교양·오락, 교통·통신, 이·미용비 및 장신구비에서 지출이 많아 도시근로자가계와 큰 차이점을 나타냈다. 특히 맞벌이가계는 가구, 가사용품 및 가사서비스 부문에서의 지출이 23만5천5백원으로 도시근로자가계의 4배에 달했다.

이는 맞벌이로 인해 주부가 가사노동이나 육아를 외부인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고 월세, 주거비의 높은 지출도 맞벌이가계의 주택보유율(52.6%)이 낮는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. 또 부부 모두가 사회활동을 하는 맞벌이가계는 피복, 교통·통신, 이·미용, 장신구 등에서도 지출이 높았다.

맞벌이가계의 가게관리를 알아보는 항목에서 맞벌이주부들은 “한달생활비를 미리 정해

놓고 그 액수를 넘지 않게 쓰느냐”란 질문에 36.9%만이 “그렇다”고 응답한 반면 비맞벌이가계 전업주부는 70.8%로 큰 차이를 보였다. 이는 “예상치 못한 돈이 생기면 옷을 사입느냐”, “주말과 휴일에 놀러가는데 쓰느냐”에서 “그렇지 않다”고 답한 비율이 맞벌이가계는 58%인데 비해 비맞벌이가계는 74.2%로 나타나 맞벌이주부의 가게관리 계속성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.

그리고 이 조사에 따르면 맞벌이 경우 가게소득관리의 대부분(58.4%)을 주부가 주도하고 남편과 공동관리는 14.7%였다.

한편 주부취업에 대한 인식도 맞벌이부부나 비취업주부 모두에게서 긍정적으로 평가됐으나 맞벌이 주부들은 소득고저를 떠나 자녀보육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답했다.

〈박혜숙 기자〉